

# 다라니기도 및 수행의 실용적 가치

-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

현견스님(김동숙)\*

1. 서언
2. 경론(經論)에 나타난 다라니 정의
3. 염혜겸수(念慧兼修)
4. 다라니 수행의 실용적 가치
  - 1) 다라니기도의 조건—신심견고
  - 2) 자정의 단계—업의정화
5. 결론

## ■ 한글요약

우리나라에서는 다라니기도 즉 주력신앙은 매우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수행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다라니수행을 지도해줄 선지식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라니수행은 출가자 재가자가 모두 즐겨하는 수행 중에 하나이다. 다라니수행에 관한 성취도도 매우 높은 편으로, 선방의 수좌스님들 가운데 일부는 다라니수행과 참선을 병행하는 이들도 많다. 다라니기도 혹은 주력신앙은 정토신앙과 마찬가지로 타력신앙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정토의 타력신앙과는 약간은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다. 정토수행에서는

---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타방정도와 자성미타 유심정도를 동시에 설한다. 하지만 다라니 수행에서는 타방정도라는 설정은 없다. 오직 다라니 수행을 통한 삼매를 강조한다. 특히 선종에서 정혜쌍수를 강조하듯이,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다라니 수행에서도 정혜의 다른 표현인 염혜(念慧)쌍수를 강조한다. 무슨 기도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행하는 신심이다. 신심이 견고하면 모든 장애를 극복 할 수 있고, 업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점이 바로 다라니기도 및 수행법의 실용적 가치라고 여긴다.

주제어 ● 다라니기도, 타력신앙, 자력신앙, 염혜겸수(念慧兼修), 신심(信心).

## 1. 서언

먼저 다라니는 현실적으로 유용한 수행법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라니기도 즉 주력신앙은 매우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수행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다라니 수행을 제대로 지도해줄 선지식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라니 수행은 출가자 재가자가 모두 즐겨하는 수행 중에 하나이다. 동시에 다라니수행에 관한 성취도 매우 높은 편으로, 선방에서도 일부 수좌스님들 가운데 다라니수행과 참선을 병행하는 이들도 많다. 한편 다라니 수행은 비교적 성취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라니 수행에 관한 영험담 내지 성취도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라니 혹은 주력신앙은 정토신앙과 마찬가지로 타력신앙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정토신앙의 타력신앙과는 약간은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다. 정토수행

에서는 타방정도와 자성미타 유심정도를 동시에 설한다. 하지만 다라니 수행에서는 타방정도라는 설정은 없다. 오직 다라니 수행을 통한 삼매를 강조한다. 특히 선종에서 정혜쌍수를 강조하듯이,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다라니 수행에서도 정혜의 다른 표현인 염혜(念慧)쌍수를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다라니기도 및 수행은 자력수행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논쟁의 여지는 있다. 다라니도 갖가지의 명칭을 사용 하는데 예를 들면 천수다라니는 관음보살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으며, 문수보살심주 역시 문수보살신앙을 바탕으로, 연화생대사(Padmasambhava) 심주(心呪)는 역시 연화생보살 신앙을 바탕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타력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본다면 다라니의 전체적인 수행은 자력과 타력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으면서, 때에 따라서 자력과 타력을 적당히 잘 배합해서 수행하는 수행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라니수행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수행보다 성취도가 빠르다는 속설이 전해진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좀 더 많은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문자가 존재한다. 즉 ‘현업은 쉽게 제지할 수 있고, 숙업은 제하기 어렵다 반드시 신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고로 신주라고 한다.’<sup>1)</sup>라고 했다. 또 다라니기도는 특정된 장소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기타 염불수행과 마찬가지로 염주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행 가능한 장점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라니기도 수행법은 매우 실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다라니기도 및 수행의 실용적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다라니기도 및 수행은 일상생활에도 매우 많은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앙자의 신심을 견고하게 해 줄뿐만 아니라 일상

1) 『楞嚴經宗通』(X16, 11b). “現業易制…，宿業難除。必假神力。故說神呪.”

생활에도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안정감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사물을 깊이 있게 관조할 수 있는 능력도 확충 시켜 준다. 즉 지견 및 소견이 열리면서 마음의 세계가 넓어지고 매우 긍정적인 마음이 확장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할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서 및 건강에도 많은 일조를 한다. 또 한편 일상생활에 가져다주는 안정감은 곧 마음의 평화로 이어지면서, 대상에 대해서 평등심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평등심을 근거로 곧 자비심이 형성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즉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심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맞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체험은 일상생활에서도 삶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점차적인 단계로 지혜의 눈이 열리게 하면서 아울러 자성불에 근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 때문에 다라니 수행은 기타 불교 수행법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수행법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한 수행방편이면서 실용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라니기도 및 수행은 한국의 대부분 사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장 친근한 수행법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 2. 경론(經論)에 나타난 다라니 정의

다라니는 음역으로 다라니(陀羅尼), 다라나(陀羅那), 다린니(陀鄰尼)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또 다라니는 의역으로 는 작지(作持), 총지(總持), 능지능차(能持能遮)이다. 다시 ‘총지(總持)는 다라니덕를 찬탄하는 것으로, 능지능차(能持能遮)를 말하며 선을 잃지 않고 악을 막아서 일으키지 않는 고로 자지(遮持)라고 이름하며,

또한 총지(總持)라고 이름 한다. 모든 선법을 가져서 유실치 않는 것이다.<sup>2)</sup>라는 뜻이다.

먼저 경전과 논전 및 주석서에서 정의하는 다라니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다라니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소개해 보겠다. 먼저 대승의장(『大乘義章』)에 나타난 다라니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다라니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법다라니(法陀羅尼)로서 부처님의 교법을 듣고 수지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며, 또 경전의 말씀을 듣고 잊지 않는 고로 문다라니(聞陀羅尼)라고 한다. 두 번째는 의다라니(義陀羅尼)로서 제법의 뜻을 총지(總持)해서 잊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주술다라니(咒術陀羅尼)로서 선정을 의지해서 비밀어(秘密語)을 발하며 예측할 수 없는 영험이 있으므로 주(咒)라고 이른다. 주다라니(咒陀羅尼)는 또 주(咒)를 총지해서 잊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인다라니(忍陀羅尼)로서 법의 실상에 안주하기 때문에 인(忍)이라고 하며 인(忍)을 가지기 때문에 이름이 인다라니이다.’<sup>3)</sup>

그러면 이러한 다라니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법다라니(法陀羅尼)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6가지의 해석이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維摩經略疏』, (T38, 575c). “總持者即歎陀羅尼德. 此言能持能遮. 持善不失遮惡不起故名遮持. 亦名總持. 持諸善法不漏失也.”

3) 『大乘義章』, (T44, 685a). “陀羅尼者. 是中國語此翻名持. 念法不失故名為持. 持別不同. 一門說四. 四名是何. 一法陀羅尼. 二義陀羅尼. 三呪術陀羅尼. 四忍陀羅尼. 教法名法. 於佛教法聞持不忘名法陀羅尼. 聞不忘故經中亦名聞陀羅尼. 二諦名義. 於諸法義總持不忘名義陀羅尼. 菩薩依禪能起呪術為眾除患. 第一神驗名呪術陀羅尼. 菩薩依禪備起多用. 隨用別論即有無量陀羅尼門. 良以呪術傳益義多故偏論之. 於法實相安住名忍. 忍法不失名忍陀羅尼. 忍行成時能入法界陀羅尼門成就法界陀羅尼德.”

‘첫 번째 선세의 업의 인연으로 인해서 얻어진다. 고로 용수가 말하데, 어떤 사람이 선세의 업인연(先世業因緣)이 있는 고로 생을 받고도 잊지 않는다. 선세의 어떤 업으로 이것(부처님의 가르침)을 문지(聞持) 하는가? 혹은 원력을 인해서 혹은 일찍이 문지(聞持)를 수습한 힘으로 이를 얻었다. 두 번째는 현재 주력의 힘을 인해서 얻는 연고이다. 용수가 말하데, 다시 어떤 사람이 신주력(神呪力)을 인해서 불망(不忘)을 얻는다. 세 번째는 약의 힘이다. 어떤 사람이 문득 약을 먹고 불망(不忘)을 얻는다. 마치 제신(諸仙)등과 같다. 네 번째는 현재의 수습을 인해서 힘을 얻는다..., 먼저 한번 듣고 소지한 법을 일심으로 기억해서 마음으로 하여금 증장시키는 것이다..., 다시 일체 들은 법을 전심(專心)으로 생각해서 모두 하여금 잊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선정을 인해서 얻는다..., 어떤 사람이 선을 의지해서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해탈의 힘인 연고로 능히 일체언설과 내지 일구(一句)도 또한 잃지 않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실혜(實慧)로 인해서 깊이 법계다라니문(法界陀羅尼門)에 들어가는 연고로 잊지 않게 하는 것이다.’<sup>4)</sup>

위에서 법다라니를 성취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법에는 여섯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법다라니를 성취하는 경우와 성취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주된 내용은 열심히 듣고 수습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냥 무조건 다라니를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 되어야 하는 마음가짐 및 자세를 밀도 있게 설명한 부분으로 부처님 말씀인 교설을 열심히 듣고 수지하기를 권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의다라니(義陀羅尼)를 얻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다. 의다

4) 『大乘義章』, (T44, 685b). “法陀羅尼得之云何. 釋有六種. 一由先世業因緣得. 故龍樹言. 有人先世業因緣故受生不忘. 先世何業得此聞持. 或因願力或會修習聞持之力所以得之. 二因現在神呪力得故. 龍樹言. 或復有人因神呪力故得不忘. 三因藥力. 有人服藥便得不忘. 如諸仙等. 四因現在修習力得..., 先於一門所知法中一心憶念令心增長..., 復於一切所聞事中專心憶念皆使不忘..., 五因禪定得..., 有人依禪得其不忘. 解脫力故能於一切言說之中乃至一句亦不忘失. 六因實慧深入法界陀羅尼門故能不忘.”

라니(義陀羅尼) 역시 법다라니와 같이 6종의 해석이 존재하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수학(修學)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의지(義持)를 얻는데 역시 6종이 있다. 내용의 법다라니의 문지(聞持)의 내용과 같다. 오직 의지(義持) 중에서 수학(修學)이 다를 뿐이다.’<sup>5)</sup>

세 번째는 주술(呪術)을 얻는데 3종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주술다라니는 다라니를 열심히 하면 주술의 공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세 가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 주술(呪術)에서 3종의 힘을 얻는다. 첫째는 현재에 수습한 연고로서 능히 주술을 얻는다. 둘째는 선정을 의지해서 능히 주술을 얻는다. 셋째는 실지(實智)로 깊이 법계주술법문(法界呪術法門)에 들어가서 능히 주술을 얻는다.’<sup>6)</sup>

네 번째 인지(忍持)를 얻는데 역시 2종이 있다고 설하고 있다. 인지다라니를 성취하는데 두 가지의 종류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 위력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인지(忍持)를 얻는데 2종이 있다. 첫째는 선세에 오랫동안 수습한 힘으로 얻을 수 있다. 모든 보살들이 오랫동안 수습한 힘으로 나며(生), 문득 일체법 중에서 불취불사(不取不捨)할 수 있다. 둘째는 현재에 수습한 힘을 인해서 힘을 얻는 연고이다.’<sup>7)</sup>

5) 『大乘義章』, (T44, 685b). “第二義持得亦有六. 與聞持同. 唯於義中修學為異.”

6) 『大乘義章』, (T44, 685b). “第三呪術得有三種. 一以現在修習力故能為呪術. 二依禪定能為呪術. 三以實智深入法界呪術法門能為呪術.”

7) 『大乘義章』, (T44, 685b). “第四忍持得有二種. 一由先世久習力得. 謂諸菩薩久修力故. 便能於一切法中不取不捨. 二由現在修習力得.”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대승의장(『大乘義章』)에서는 다라니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그 내용을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다라니의수행법에는 네 가지 단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법다라니 혹은 문다라니는 부처님의 교법 및 교설을 자주 듣고 학습하기를 권하는 내용이라면, 의다라니는 부처님의 교설 및 교법의 내용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고, 주다라니는 부처님의 교설 및 교법을 듣고 깊이 이해해서 실천에 옮기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인지다라니는 위의 세 가지 다라니를 잘 실천수행하면 인지다라니의 경계에 도달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자세하게 고찰해 보면 문사수(聞思修)를 거쳐서 증오(證悟)의 단계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매우 체계적인 수행단계를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서 수행하는 이들에게 다라니 수행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도움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불지경론(『佛地經論』)에서도 다라니를 소개하고 있는데, 뜻은 대승의장(『大乘義章』)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즉 ‘첫 번째는 법다라니(法陀羅尼), 두 번째는 의다라니(義陀羅尼), 세 번째는 주다라니(呪陀羅尼), 네 번째는 능득보살인다라니(能得菩薩忍陀羅尼)이다’<sup>8)</sup>라고 하고 있다.

능엄경집주(『楞嚴經集註』)에 나타난 다라니의 정의를 살펴보면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라니는 번역하면 총지(總持)이다. 법화에서 세 종류의 다라니를 밝히고 있다. 곧 공가중(空假中)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세 종류의 다라니라는 것은, 첫 번째는 선다라니(旋陀羅尼)로서 가(假)를 회전(旋)해

8) 『佛地經論』, (T26, 02a). “陀羅尼者. 增上念慧. 能總任持無量佛法令不忘失. 於一法中持一切法. 於一文中持一切文. 於一義中持一切義. 攝藏無量諸功德故. 名無盡藏. 此陀羅尼略有四種. 一法陀羅尼. 二義陀羅尼. 三呪陀羅尼. 四能得菩薩忍陀羅尼.”



서 진(眞)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백천만억다라니(百千萬億陀羅尼)로서 진(眞)을 회전해서 속(俗)을 벗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법음 방편다라니(法音方便陀羅尼)로서 중도 법음으로 능히 초주(初住) 방편을 삼는다. 바로 바라건대 일심산관(一心三觀)으로 망상행문(妄想行門)을 섭복해서 초주(初住)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삼지오안(三智五眼)을 일시에 개발해서 고로 이르데 불지견(佛知見)에 들어간다.’<sup>9)</sup>라고 적고 있다.

번역명의집(『翻譯名義集』)에서도 다라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론에 세 가지의 다라니를 밝히고 있다. 첫 번째는 문지다라니(聞持陀羅尼)로서, 이 다라니를 얻으면 일체언어 및 제법등 귀로 듣는 것을 모두 망실(忘失)치 않는다. 곧 명지(名持)이다. 두 번째는 분별지다라니(分別知陀羅尼)로서, 이 다라니를 얻는 자는 모든 중생 및 제법 대소 호추(好醜) 등을 분별해서 모두 안다. 고로 분별다라니라고 한다. 곧 의지(義持)이다. 세 번째는 입음성다라니(入音聲陀羅尼)로서, 이 다라니를 얻는 자는 일체 언어 및 음성을 듣고 좋아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는다. 일체중생이 저 향사와 같이 겁수에 악언으로 꾸짖고 욕을 해도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며, 일체중생이 저 향사와 같은 공양으로 찬탄해도 그 마음이 동함이 없고 기뻐하지도 짐착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입음성다라니(入音聲陀羅尼)가 된다. 곧 행지(行持)가 된다.’<sup>10)</sup>라고 하고 있다.

9) 『楞嚴經集註』, (X11, 17a). “陀羅尼此云總持. 法華明三陀羅尼. 即空假中三義也. 三陀羅尼者. 旋陀羅尼. 旋假入真也. 二百千萬億旋陀羅尼. 旋真出俗也. 三法音方便陀羅尼. 中道法音能為初住方便也. 今請一心三觀攝伏妄想行門. 欲入初住. 三智五眼一時開發. 故云入佛知見.”

10) 『翻譯名義集』, (T54, 22b). “大論明三陀羅尼. 一聞持陀羅尼. 得此陀羅尼者. 一切語言諸法耳所聞者. 皆不忘失. 即是名. 二分別知陀羅尼. 得是陀羅尼. 諸眾生諸法. 大小好醜. 分別悉知. 故分別陀羅尼. 即是義持. 三入音聲陀羅尼. 得此陀羅尼者. 聞一切語言音聲. 不喜不瞋. 一切眾生. 如恒沙等. 劫壽惡言罵詈. 心不憎恨. 一切眾生. 如恒沙等. 以讚歎供養. 其心不動. 不喜不著. 是為入音聲陀羅尼. 即是行持也.”

여기까지 몇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다라니가 내포하고 있는 이론체계 및 수행방법을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 같다. 약간의 명칭이 다른 것이 있지만, 역시 큰 틀에서 의미는 비슷하다. 위에서 소개한 몇 가지의 다라니는 반드시 명칭과 단계적인 내용 및 수행체계를 수록하고 있다면 아래의 내용은 단계적인 명칭 소개보다는 다라니의 공능 및 효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금강경집주(『金剛經註解』)에서 말하기를, ‘대다라니문이 있는데 이름이 원각이며, 일체진여열반을 유출한다..., 원각이라는 것은 묘성이다. 원각묘성을 인해서 일체 진여의 법을 유출하며, 열반의 이치로서 불생멸의 도도 모두 이곳을 쫓아서 나온다.’<sup>11)</sup>라고 했다. 다라니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깨는 매우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한다. 여태껏 알고 있는 다라니에 대한 인식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한 타력 신앙으로 여겼는데, 모든 열반의 이치 내지 불생멸의 도(道)조차도 다라니에서 유출 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일체제불 및 제불의 최상의 깨달음의 법도 모두 이 경에서 유출 되었다.’<sup>12)</sup>라고 하는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또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에서도 다라니를 설명하고 있다.

‘다라니라는 것은 제보살님들의 무량다라니 문이다..., 만약에 간략하게 다라니 상에 대해서 설하자면, 제보살이 성취한 자류(字類)의 명구문신(名句文身)을 통달해서 뜻과 같이 자제한 것이며, 이와 같은 염력의 힘을 얻으면, 염력을 말미암는 고로 일자(一字) 가운데를 따라서 능히 일체 종류의 염정의 뜻을 분별해서 개연(開演)할 수 있다. 이런 연고로 이름이

11) 『金剛經註解』, (X24, 23c). “有大陀羅尼門，名為圓覺。流一切真如涅槃…，圓覺者，妙性也，因圓覺妙性，流出一切真如之法，涅槃之理，不生滅之道，從此而出。”

12) 『金剛經』, (T8, 21b). “一切諸佛，及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皆從此經出。”

다라니 문이다.<sup>13)</sup>라고 하고 있다.

즉 위의 두 가지 내용은 다라니기도 및 수행을 성취하면 어떠한 결과와 공능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곧 다라니기도 수행도 기타불교의 보편적인 수행법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수행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도 여러 경전에서 다라니에 대한 소개 내지 분석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지면상 여기까지 다라니에 대한 정의 및 효능과 성취에 관한 것은 이만 줄이겠다. 이와 같이 다라니기도 및 수행법은 우리가 그냥 무작정 하는 그런 수행법이 아니라, 수행의 이론체계와 의미 및 단계적인 실천수행의 근거가 경전과 논서 및 주석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다.

### 3. 염혜겸수(念慧兼修)

불교의 전통수행법에서는 계정혜를 강조한다. 중국천태종의 수행법인 지관쌍수도 역시 표현만 다를 뿐 정혜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선종 역시 정혜쌍수를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다라니기도 및 수행법에서도 비슷한 이론이 존재한다. 즉 ‘『지론』에서는 정혜로서 체를 삼는다. 불지유가(『佛地瑜伽』)에서는 증상염혜(增上念慧)로 성(性)을 삼는다. 혜로서 법을 비추어서 염역(念憶)을 가지는 연고이다.’<sup>14)</sup> 라고 했다. 즉 ‘다라니는 염혜(念慧)를 증상시키고 항상

13) 『顯揚聖教論』, (T31, 03c). “陀羅尼門者, 謂諸菩薩無量陀羅尼門…若欲略說陀羅尼相者. 謂諸菩薩成就字類通達於名句文身如意自在. 得如是種類念持之力. 由念力故隨一字中而能顯示. 分別開演一切種染淨之義. 是故說名陀羅尼門.”

14) 『華嚴經探玄記』, (T35, 02a). “智論以定慧為體. 佛地瑜伽增上念慧為性. 以慧照法. 念憶持故.”

무량불법을 유지해서 하여금 망실하지 않게 한다. 한 법 가운데에 일체법을 가지게 하고, 일문(一文)가운데 일체문(一切文)을 가지게 하고, 하나의 뜻 가운데 일체의 뜻을 가지게 해서, 무량한 모든 공덕을 섭장(攝藏)하게 하는 연고로 이름이 무진장이다.<sup>15)</sup>라고 했다.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일법(一法), 일문(一文), 일의(一義) 등 일체법을 오롯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불보살의 증상염혜 부사의력’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곧 ‘불보살증상염혜부사의력을 말한다. 자심상분일법상 가운데 일체법이 나타난다..., 또 능히 무량 무진공덕법문을 시현한다. 견분자체도 또한 무변승공능을 갖추는 연고로 일체(법)로 하여금 망실치 않게 유지시켜준다. 이와 같이 염혜부사의력의 이름이 다르니이다.’<sup>16)</sup>라고 했다.

다라니수행법도 기타 수행법과 같이 동등하게 염혜쌍수(念慧雙修)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고찰해 보았다. 불교의 기타 수행법에서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중시하듯이, 다라니 수행법에서 왜 염혜쌍수를 중시하는 걸까? 이 점은 정혜쌍수의 중요성을 통해서, 염혜쌍수의 중요성을 피력해 보겠다.

『대지도론』에서 말하기를 ‘만약에 정 가운데 주하지 않으면 곧 광혜(狂慧)로서 대부분 사의(邪疑)에 떨어지고 능작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정 가운데 주하면 곧 능히 모든 번뇌를 파할 수 있고, 모든 법보상을 얻을 수 있다.’<sup>17)</sup>라고 했다. 또 ‘만약에 정은 있으되 혜가 없으면 이 정의 이

15) 『佛地經論』, (T26, 02a). “陀羅尼者. 增上念慧. 能總任持無量佛法令不忘失. 於一法中持一切法. 於一文中持一切文. 於一義中持一切義. 攝藏無量諸功德故. 名無盡藏. 此陀羅尼略有四種. 一法陀羅尼. 二義陀羅尼. 三呪陀羅尼. 四能得菩薩忍陀羅尼.”

16) 『佛地經論』, (T26, 02a). “謂佛菩薩增上念慧不思議力. 自心相分一法相中現一切法..., 又能示現無量無盡功德法門. 見分自體亦具無邊勝功能故. 任持一切令不忘失. 如是念慧不思議力. 名陀羅尼.”

17) 『大智度論』, (T25, 18c). “若不住定中, 則是狂慧, 多墮邪疑, 無所能作; 若住定中, 則能破諸煩惱, 得諸法實相.”

름은 치정(癡定)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맹아가 눈먼 말을 타고 가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며, 만약에 혜는 있으되 정이 없으면, 이혜의 이름은 광혜(狂慧)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바람 가운데 연등이 요동치는 것과 같다.’<sup>18)</sup>고 했다.

원강경대소석의초(『圓覺經大疏釋義鈔』)에서도 정혜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정이 없는 혜는 광혜이다. 마치 바람 가운데 등불과 같고, 요동치는 물과 같다; 혜가 없는 정은 우정(愚定)이다. 마치 민절무심(悶絕無心)한 것과 같고, 마치 고을무식(枯杌<sup>19)</sup>無識)한 것과 같다. 또 정에 치우쳐서 닦으면 무명만 증장하고, 혜에 치우쳐서 닦으면 사견만 증장한다. 고로 열반경에서 이르기를 성문은 정력(定力)이 많은 고로 불성을 보지 못하고, 보살은 혜력(慧力)이 많은 연고로 견성(見性)은 하데 요요(了了: 분명하다)하지 못한다.’<sup>20)</sup>라고 했다.

위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정혜겸수의 중요성을 피력한 내용들이다. 하나의 고사를 통해서도 정혜겸수의 중요성을 알아보겠다.

1930년대 중국 종남산에서 두 분 스님이 20~30여 년 동안 정진수행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큰 성과를 보지 못하자, 하루는 한 스님 께서 하산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참선을 하기로 했다. 그러자 한 스님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행은 분명히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으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했다. 그러

18) 『觀音玄義』, (T34, 24c). “若定而無慧者此定名癡定. 譬如盲兒騎瞎馬必墮坑落塹而無疑也. 若慧而無定者此慧名狂慧. 譬如風中然燈搖颯.”

19) 마를 고. 나누 그루터기 올.

20) 『圓覺經大疏釋義鈔』, (X9, 09b). “謂無定之慧. 慧是狂慧. 如風中燈. 如搖動水. 無慧之定. 定是愚定. 如悶絕無心. 如枯杌無識. 又偏修定增長無明. 偏修慧增長邪見. 故涅槃云聲聞定力多故不見佛性. 菩薩慧力多故見性不了了.”

나 그 스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하산을 했다. 종남산에서 상남동관(常南同關: 지역명)까지 하루 종일을 걸어서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작은 여관에서 묵어가기로 했다. 스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부좌를 하고 앉는 습관이 있다. 이 스님도 마찬가지로 앉자마자 가부좌를 틀고 앉았는데, 오랫동안 정진을 한 공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깊은 입정에 들게 되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이 노화상이 먹지도 잠을 자지도 말을 하지도 않고 앉아만 있는 것이었다.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역시 가부좌를 한 상태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인은 스님이 숨을 쉬나 안 쉬나 하고 점검을 해보니 숨을 쉬지 않는 것이었다. 아마도 죽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하룻밤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역시 숨을 쉬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인장은 바로 화장을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화장을 하고 나서 매일 밤마다 그 스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재나리(‘我在哪裏’) 즉 “나 어디에 있나!” 하였다. 그러니 이 주인장은 기가 찰 노릇이었고, 그리고 손님도 오지 않았다. 즉 귀신이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면서 손님의 발길이 아예 끊어져 버렸다. 주인장 역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이 이야기가 소문이 퍼져서 아랫마을에 사는 어느 스님에게까지 전해졌고, 하루는 이 스님께서 이곳을 지나는 길에 주인장한테 말하기를 ‘일전에 스님한분이 죽지 않았는데 주인장이 모르고 화장을 해서 오늘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일러 주었다. 즉 “출가자가 입정(入定)에 든 것인데 당신이 모르고 태워 버린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 스님이 매일 매일 찾아와서 “나 어디에 있나! 나 어디에 있나!” 하지 않느냐고 하자, 주인장은 그렇다 “매일매일 찾아와서 나에게 욕을 한다.”라고 하자, 좋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영업도 다시 할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먼저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 나무와 큰 물동이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큰 물동이에

는 물을 가득 채우고, 나무는 밤이 되어서 불을 붙이라고” 했다. 주인장은 시키는 대로 하고 밤이 되었다. 그스님 귀신이 나타났다. 역시 늘 하던 대로 “나 어디에 있나! 나 어디에 있나!”라고 하자, 그스님께서 “큰 물동이 속에 있다.”라고 하자, 그 귀신이 된 스님이 물을 휘휘 저어 보고는 물속에 “내가 없다.”라고 하자, 다시 그러면 저 불속에서 찾아 보라고 하자 불속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거기에 “내가 없다.”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스님이 귀신이 된 스님에게 말하기를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고,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묻는가?”라고 하자, 그 자리에서 크게 깨치고 크게 하하 웃었다.<sup>21)</sup> 고 한다. 이 고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혜점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다. 곧 정은 있지만 혜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수행은 반드시 정혜를 겸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고사는 곧 정은 있지만 혜가 부족한 상태에 대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수행은 반드시 정혜를 겸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혜균등하게 닦을 때 비로소 완성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모든 경전이나 논서 및 주석서 기타어록에서 조차도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다라니수행에서도 강조하는 하는 부분이 역시 염혜(念慧)쌍수이다. 여기서 염과 정에 대한 異同 내지 구체적인 담론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기겠다.

#### 4. 다라니 수행의 실용적 가치

21) 유튜브, 『梦参老和尚97岁生日开示』  
<https://www.youtube.com/> 2019.10.25.

우리의 기억 저편의 인류역사는 원시시대 농경시대를 거쳐서 산업시대를 거치면서 물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왔고, 현대사회는 정보시대로서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성패도 개인의 성패도 갈리는 시대가 도래 했다. 지금은 진일보한 AI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 되었다. 때문에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며 동시에 매우 세분화 되어있다. 특히 AI의 기술 발전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발전을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보시대에는 누가 더 빨리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성패 조직의 성패 및 개인의 성패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로봇이 설법을 하는 곳도 있다. 비록 가상의 세계이지만 불교의 정보를 가득 축적한 로봇은 고승대덕 못지않은 법문을 펼친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를 하면서 인간들은 결국 기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알파고는 많은 정보의 축적으로 인간 두뇌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렇듯 현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현실에서 우리불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급변하는 시대이라는 단어 앞에서 종교의 역할은 인류에게 혹은 개인에게 무엇으로 공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불교의 모든 수행법 및 내지 다라니기도 수행법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이익과 가치를 부여 할 수 있을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생명체 가운데 인간이 가장 능력이 있는 존재, 즉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인간에게도 한계는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종교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각자 개인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러하다는 것이다. 종교도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부침과 성패를 거듭하면서 현대에 이르게 되었다. 종교가 인류 역사와 함께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특수성이란 곧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의지처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때 종종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데, 특히 종교의 타력신앙은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근원적인 힘과 원동력을 제공해 왔다. 특히 불교의 다라니기도 및 수행법은 고금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많은 힘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실질적인 효과 및 성과도 있었다. 또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실용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한편 다라니기도 및 수행법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 내지 업의 굴레를 극복한 사례, 곤경에 처했을 때도 다라니기도 및 수행법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역시 부지수이다. 때문에 다라니기도 및 수행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할뿐더러 실용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렇다면 다라니기도 및 수행법에는 어떠한 매력에 있기에 고금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일까? 또 현실적으로 어떤 실용적인 가치와 이익이 있기에 사람들이 즐겨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다라니기도가 이루어지는데(성취된다) 그 실용성 및 가치성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과학이 발달 하면서 종교의 역할도 크게 축소되었고, 종교의 힘이 약화가 된 것도 사실이다. 과학은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극복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과학이 우주의 상당부분은 비밀을 풀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마음 혹은 정신 영역의 존재에 대한 영역은 아직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즉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시공을 초월하는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도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영적

인 부분은 고대로부터 종교의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뇌의 기능을 말하지만 역시 뇌가 하는 일은 육체가 소멸함과 동시에 함께 작동할 수 없다. 불교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마음과 정신 및 육체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기는 하지만, 조금은 마음을 더 우위에 둔다. 사실 육체는 걸림이 있지만 마음은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들의 마음 정신 의식은 모두 육체에 갇혀서 그리 자유롭지는 못하다. 이렇게 육체에 갇힌 정신이자 마음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역대 불보살님 및 고승대덕들은 끊임없이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행법을 강조 하셨다. 그 수행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라니기도가 포함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기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타력신앙으로, 자력수행과는 좀 동떨어진 수행법이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다라니기도는 단순하게 타력의 힘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다라니기도를 깊이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자력신앙과 연결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라니기도는 마치 타력신앙으로만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불교에는 다양한 방편의 수행법이 존재 하며, 근본은 자력신앙으로 깨달음을 권장하고 강조하지만, 타력신앙 역시 자력신앙 못지않게 중요한 수행법이다. 다라니기도 처음에는 모두가 타력에 의지해서 기도를 성취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력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타력을 통해서 자력을 들어가는 다라니기도의 수행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점이 바로 다라니기도의 실천적인 의미와 실용적인 가치의 표방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다라니기도 및 수행의 실태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찰에서 일용의식으로 다라니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때로는 특별한 기도로서 능엄주 및 천수다라니기도 21독 108독 혹은 300독 1,000독, 때로는 철야정진 기도로 천수다라니 및 능엄주기도를 수행

하기도 한다. 아니면 아예 100일, 1,000일 다라니기도 및 능엄주기도를 봉행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불교의 역사에서 다라니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 가보면, 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밀교시대이다. 어찌면 다라니기도는 밀교의 대표성을 띠기도 한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수행 정체성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선수행으로 선불교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살펴볼 때 한국불교에서 매일 집행하는 의식집에서 유독 천수다라니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의문점을 낳게 한다. 이점은 앞으로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여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이 점은 다음 과제로 남겨 두겠다.

### 1) 다라니기도의 조건-신심경고

또 되풀이 되는 자문이지만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다라니기도 및 수행을 할까? 아마도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라니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점은 약간은 우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는 이러한 심리상태로 출발할 것이다. 때문에 다라니기도는 대체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할 때 기도를 시작한다. 특히나 현실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혹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입시기도 내지 사업성취 및 승진기도 취업기도 등등 개인이 원하는 것과 대부분이 연결된 다라니기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앙을 일반적으로 기복신앙이라고 치부하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복신앙을 무조건 폄하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위배한다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교설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수기설법(隨機說法)이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가르침은 맞지 않는다. 공자님

께서도 사람들을 교화 할 때 인재시교(因材施教)를 강조하셨다. 곧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침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다라니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 성취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태도는 바뀌기 시작한다.

물론 기도가 이렇게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다라니기도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는 바라는 마음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가 성취가 된다고 보면 된다. 부처님께서도 악도 선도 진화한다고 하신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기도의 속성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거창한 발원 및 대원력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는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각자의 욕망에 바탕을 둔 기도를 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순순하게 진리와 법을 구하고 더 나아가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이도 있다. 아무튼 기도하는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도방향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몇 가지의 선행 조건을 기본으로 다라니기도 및 기타기도 실행하면 절대로 실패한 기도가 될 수 없다.

다라니기도에는 몇 가지의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신심이 견고해야 한다. 믿는 신심이 견고해야 한다는 것은 신심이 견고할 때 반드시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는 마음이 부실하면 절대로 소원성취를 이룰 수가 없다.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신심이 청정 하면 곧 실상을 이룬다.’<sup>22)</sup>고 했으며, 또 ‘심신이 청정하면 드디어 법안을 얻으며, 의심이 없으면 결정코 과를 얻고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sup>23)</sup>고 했다. 『화엄경』에서도 ‘믿음은 도의 근원이자 공덕의 어머니가 되며, 일체선법을 증장시키며, 일체의 모든 의혹을 제멸하

22) 『金剛般若波羅蜜經』, (T8, 27a). “信心清淨, 卽生實相”

23) 『長阿含經』, (T1, 20b). “信心清淨, 遂得法眼, 無有狐疑, 決定得果, 不墮惡趣…”

고, 무상도를 시현하고 개발한다.’<sup>24)</sup>고 했다. 두 번째는 마음가짐으로, 즉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반드시 기도 마장과 장애가 일어난다. 물론 샅된 기도도 일구월심 하면 이루어지기는 하나 곧 모래성과 같아서 곧 사라지게 된다. 마치 큰 파도가 순식간에 모래성을 허물어 버리듯이...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정진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즉 지속적으로 정진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기도 되었든지 한 가지 종류를 선택해서 꾸준히 밀고 나아갈 때 비로소 기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기도 저기도가 좋다고 자주 바꾸는 것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옛 어른스님들께서도 경고 하셨다. 가끔 우리주변에서 철야정진기도를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와 특별한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몰아서 한꺼번에 기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 어느 기도를 하든지 한 가지의 기도 주제를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다. 네 번째는 선지식을 의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지식의 지도를 받으면서 기도 및 수행을 해야 한다. 혼자기도 및 수행을 하다 보면 본인의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가 없다. 자칫 잘못하면 샅된 길로 갈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수행해야 한다.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원하는 바가 모두 성취된다고 본다. 이 네 가지의 기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고사를 통해서 알아보겠다.

첫 번째 믿는 마음에 대한 고사이다. 어떤 보살님께서 일생을 다라니기도 정진을 했다. 그런데 매우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건성 건성으로 기도를 했다. 또한 기본적인 불자로서 지켜야 할 계율

24) 『大方廣佛華嚴經』, (T9, 19c). “信為道元功德母, 增長一切諸善法, 除滅一切諸疑惑, 示現開發無上道.”

도 지키지 않은 채 그저 천수다라니만 평생 동안 이어갔다. 그런데 이 분이 93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셨는데, 하루는 자손들에게 몇칠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본인을 영접하러 오니까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라고 일러 주었다. 그리고 본인이 믿는 스님을 불러서 염불을 하게 하고는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했다. 이 고사는 믿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무슨 기도가 되었든지 믿는 마음이 견고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지 않을 것이 없다는 방증이다. 물론 여기에는 불보살님들의 원력과 가피가 함께 결합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두 번째 마음가짐의 중요성의 문제이다. 만약에 탐심에 바탕을 두거나 내지 지나친 사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루어지기는 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을 하셨듯이 ‘선도 악도 진화한다.’라고 했듯이 나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성취는 할 수 없다. 전해들은 한 가지 기도 사례를 적어 보겠다.

이제는 40년도 넘은 이야기이다. 모사찰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어떤 비구스님께서 천일관음기도를 했는데 목적은 복권1등이 당첨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사분정근<sup>25)</sup>을 하였다. 천일이 가까이 다가올 무렵 스님께서서는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커다란 금덩어리를 던져 주시면서 “옳다 처먹어라!” 라고 하시는 소리를 듣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정근을 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복권을 샀는데 정말로 일등으로 당첨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스님은 그길로 은사스님에게 당시 최고로 좋은 승용차 한 대를 사서 드리고, 본인은 그길로 사찰의 아래 마을에 있는 다

---

25) 하루에 네 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분정근이라고 하는데, 즉 새벽, 사시, 오후, 저녁시간 등을 말한다.

방아가씨와 함께 환속을 했다. 그리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어느 날 우연히 진주의 모사찰의 객실에서, 그 환속한 스님의 이전 도반 스님께서 그 환속한 스님을 만났는데 그가 다시 승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도반스님이 자초지종을 물으니 하는 대답이 “다방아가씨가 돈이 떨어지자 도망가서 할 수 없이 다시 절집으로 왔노라고 하였다.” 고 했다.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는 기도 할 때의 마음가짐이다. 이렇듯이 사심(私心)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정심(正心)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모두 열심히 기도를 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소원성취가 되기도 하지만 절대 견실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다. 즉 사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곧 모래성을 짓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원성 취를 하게 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의 지혜가 증장되고 동시에 업장소멸도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선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사례를 적어 보겠다. 제가 아는 불자인데 식당을 경영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식당 경영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하루에 다라니기도 300독을 하게 했다.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스님 희유한 일이 다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무슨 일입니까?” 하니, 하는 말이 “제가 열심히 다라니기도를 하는데 제 뱃속에서 코를 골고 잠을 자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였다. 이유인즉 이분은 이번 다라니기도를 하기 이전에 마음이 다급하니까 이기도 저기도 좋다는 것은 마구 잡이로 했다. 어느 분이 산신기도가 좋다고 해서 잡신을 모신 곳에 가서 산신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 결론은 그 신도분은 결국 기도 장애가 나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선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긴다는 것이다.

위에서 네 가지의 기도조건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 가운데서 첫 번째의 신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슨 기도가 되었든 간에 신심이 견고해야 기도 성취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다라니기도 및 수행법도 순기능만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며 역기능도 나타난다. 때문에 다라니기도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판별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다라니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은 삿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중도 폐를 하게 되는 기도장애 및 마장이 생긴다. 이것은 아마도 기도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업의 현현일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순기능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즉 갑자기 눈앞에 관세음보살이 출현 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즉 “집착하면 망상이요. 집착하지 않으면 성경(聖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경계는 아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기도하기 전 먼저 선행 되어야 점을 중국의 몽참(夢參)스님<sup>26)</sup>께서는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 법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먼저 참회

---

26) 몽참장로(夢參長老: 1915-2017)의 속명은 유서정(劉瑞庭)이다. 세수 103세이시고, 법납은 87년이다. 일찍이 허운(虛云), 자항(慈舟), 담허(淡虛), 홍일(弘一) 등 일대고승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현밀겸수(顯密兼修)했고 계율을 중시하고 홍양했다. 특히 『화엄경』, 『지장경』, 천태학 등에 일가견이 있었다. 공산화가 되면서 때마침 티베트에서 공부를 하던 중 중국 공산당 사람들이 티베트어를 통역 해 줄 것을 요구하자 거절 하였다 이유는 티베트 민중들을 상해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였다. 그 결과로 인해서 33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80년에 비로소 출옥 하였고, 당시 나이가 60세였다. 몽참스님은 꿈과 인연이 많은데 꿈을 통해서 출가를 하였고,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 마다 꿈으로 예시를 받았다. 그래서 법명이 원래는 각성(覺醒)인데 몽참으로 바꾸었다.



기도를 해서 입장을 소멸한 뒤에 참선이든 기도를 해야지 장애가 없어져서 순리대로 수행도 되고 기도도 성취된다.”고 강조하신다. 이 말씀이 매우 이치에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 2) 자정의 단계---업의정화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를 기본 조건을 충족해서 꾸준히 다라니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왜 나는 이런 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등등의 의문이 증폭되기도 한다. 물론 각 개인마다 일어나는 심리상태는 각각 다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기도를 하다 보면 심리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이 심리적 변화는 대체로 자신과 및 주변에 집중이 되면서 더욱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게 된다. 즉 자기 업에 대해서 점검을 시작하게 된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 하였듯이 고금이래로 다라니기도 및 수행을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소원이 크든 작든 간에 자신의 원을 충족하기 위해서이다. 또 사람들은 다라니기도를 수행의 방편으로 여기기보다는 일종의 기도라고 생각한다. 즉 타력신앙이라고만 생각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분석을 해 보면 수행과 기도는 약간의 개념 차이가 존재한다. 수행은 자력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면, 기도는 자력보다는 불보살의 가피를 구하는 타력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엇인가 필요할 때, 즉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비로소 다라니기도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본인은 다라니기도 역시 여러 가지 수행 가운데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다라니기도를 시작할 때, 대부분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라니기도를 시작 하지만, 오랫동안 다라니기도를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각자가 스스로 자신이 심리가 정화

되고 불법에 대한 신심이 확고해 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비록 시작은 지극히 사적이지만,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마침내는 대해를 이루듯이, 다라니 기도도 계속해서 놓지 않고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 이러한 경계에 도달 했구나 하는 마음의 변화 즉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심리적 변화는 확고한 자신의 신념을 심어준다 그 신념은 바로 불법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다.

확고하고 견고한 신심이 형성이 되면 마음은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자신감 및 믿음에 대한 힘이 생기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두렵고 불안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스스로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단단해 지는 심리적인 상태를 경험 할 수 있다. 즉 밖을 향해서 치닫던 자신의 마음이 자기내면으로 향하면서 심리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울러 사물을 보는 시각에도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변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 지게 되고, 여태까지의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의 허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 한다. 또 기도를 하기 전에 들뜬 생각 및 부정적인 심리적 현상들이 서서히 사라진다. 물론 위의 사례는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곧 다라니기도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 다라니수행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설법이 근기설법임을 감안 할 때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본다. 즉 각자의 지어온 업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및 변화가 모두 동일 할 수는 없다. 누구든지 열심히 기도를 해 보신 분들은 이러한 경험은 조금씩 가지고 계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라니기도 및 수행도 불교의 모든 수행법 및 기도와 같이 자정의 단계를 거치면서 조금씩 업이 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 업이 정화 되면 여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등이 변화를 겪게 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린다. 업의 정화는 곧 이전의 자신의 부정적인 악습 등 고질적인 자기 습관이 정리 되거나 정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및 사물을 바라보았던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된다. 특히 크게 자신이 변화 되는 시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지점은 바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며, 강렬한 참회의 마음이 생겨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전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분별하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내려놓게 되고, 마음에 평화가 형성 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이러한 상태가 곧 자기 자정의 단계로서 업의 정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선정의 맛을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과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 5. 결론

다라니기도 및 수행법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았다. 다라니기도 및 수행법도 불교의 기타 수행법처럼 완벽한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찰해 보았다. 불교의 기타 수행법이 정혜 및 지관 등을 강조하였다면, 다라니기도 및 수행법도 마찬가지로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염혜검수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불교의 수행법은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해진 방법이기 때문에 무수한 방편이 존재하고 아울러 무수한 방편으로 인해서 천차만별의 업 중생도 구제를 받고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결론적으로 어떤 기도 수행을 하더라도 반드시 문사수(聞思修)가 바탕이 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분석 고찰해 보았다.

열반경(『涅槃經』)에서 사선법(四善法)을 설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빌려서 다라니기도 및 수행법의 속성에 대한 결론을 맺으려 한다. 즉 ‘첫 번째 선지식을 친근하기이다. 선지식은 항상 선법을 말하기 때 문이다. 만약에 선지식을 친근하면 곧 일체악법을 멸제하고 일체선근 을 증장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능히 법을 수지해서 듣는다는 것이다. 이미 이와 같이 선지식을 친근했기 때문에 또 능히 정법을 수지해서 들 을 수가 있고 선근을 육성 시킨다. 세 번째는 능히 사유한다는 뜻이다. 이미 이와 같이 정법을 수지해서 들었기 때문에 곧 마땅히 미묘한 뜻 을 사유해서 마음에 계회(契會)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여설 수행하는 것으로 이미 이와 같이 능히 정법의 뜻을 사유했기 때문에 마땅히 설 한바와 같이 그 행을 닦는 것이다. 즉 능히 생사번뇌의 고를 해탈하고 진공 적멸의 도를 증득한다.’<sup>27)</sup>라고 하고 있다. 다라니기도를 비롯한 기타 기도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과 행동을 실행에 옮겨서 정진을 하 다보면 반드시 성취를 얻을 것이다.

사실 위의 내용은 모든 불교의 수행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지침이 라고 하겠다. 즉 모든 기도 및 수행은 많은 선지식을 친근하고 작은 선 법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악이라도 짓지 말고, 아울러 악을 소 멸해서 선근을 증장시키고, 정법을 가까이 해서 선근을 육성시키고, 바르게 사유해서 정법으로 마음을 계합하고, 마지막으로 여설수행하 면 반드시 해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위의 다라니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뜻과 의미가 일치한다. 총체적으로 모든 불교의 수행법 및 기도에 대해서 경전에서 설한 바에 따라서 약간의 각도와 차이점

27) 『三藏法數』, (B22, 04b). “一近善知識. 謂善知識常談善法. 若人親近. 則得滅除一切惡法. 增長一切善根也. 二能聽受法. 謂既親近善知識. 又能聽受正法. 生長善根也. 三能思惟義. 謂既聞正法. 即當思惟微妙之義而契會於心也. 四如說修行. 謂既能思惟正法之義. 當如所說而修其行. 則能脫煩惱生死之苦. 證真空寂滅之道也.”

은 존재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모두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모두가 해탈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사실 무슨 기도 및 수행을 하던지 열심히 하면 결국 본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경계가 있다. 이러한 경계를 통해서 자신의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대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다라니기도는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하고, 동시에 실용성이 아주 강한 수행법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오 분씩이라도 좌선을 하게 되면 신심이 건강해 지듯이, 기도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꾸준히 하다보면 최소한 신심의 안정과 건강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처님의 가피 중에는 세 가지의 가피가 있다. 즉 명훈가피(冥熏加被), 몽중가피(夢中加被), 현현가피(顯現加被)인데, 평소에 열심히 기도나 수행 정진을 하면은 최소한 위의 세 가지의 가피는 입을 수 있다. 때문에 일생을 무애 무탈하게 보낼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이 된다고 여기며, 따라서 다라니기도는 현실에서 매우 실용성이 높은 수행방편이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三藏法數』 (B22)  
『楞嚴經宗通』 (X16)권  
『觀音玄義』 권상 (T34)  
『華嚴經探玄記』 17 (T35)  
『佛地經論』 권5 (T26)  
『大智度論』 권20 (T25)  
『圓覺經大疏釋義鈔』 권3 (X9)  
『翻譯名義集』 권5 (T54)  
『金剛經註解』 권2 (X24)  
『金剛經』 (T8)  
『顯揚聖教論』 권3 (T31)  
『大乘義章』 (T44)  
『楞嚴經集註』 권4 (X11)  
『維摩經略疏』 (T38)

■ Abstract

## **The Practical Value of Prayer and**

– Focusing on everyday life –

Kim Dong Sook(Ven. Hyun-gyun)

In Korea, the main faith, or Darani, is very universal, but there is no systematic performance system, and there is no prior knowledge to guide Darani performance., Nevertheless, the Darani practice is one of the activities that the in-house members enjoy., The achievement of Darani performance is very high, 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parallel to Darani performance and jinseon in the line., Therefore, it is a reality and fact that the story about the performance of Darani is very universally talked about, Darani or the main faith is classified as a tacit faith, just like the religion of the land., However, there is a part that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other belief of the land, and on the other hand, it also describes the other land and the magnetic mita oil core soil at the same time., But there is no other settlement in the Darani practice. Only the Sammae through the Darani practice is emphasized.,Especially, as the emphasis on Jeonghye-binds in Zenjong emphasizes Yeomhye() twins, which are different in expression but different in Darani performanc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ny prayer is the faith that is believed and done; if the faith is strong, it can overcome all obstacles and change the business., This is the real value of Darani prayer and practice.

Keywords ● Daranido, Taeng-Hyun faith, Self-Health faith, Yeom  
Hye-Gyumsu, Godship.

■ 논문투고일 : 2020. 5. 15 ■ 심사완료일 : 2020. 5. 31 ■ 게재확정일 : 2020. 6. 2